

지역 소식통

고창군,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지난 7일 문화재청이 주최한 2022년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국 42개 지자체 중 고창군을 포함한 8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의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역사문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사)고창농악보존회와 함께 '고창농악과 함께하는 우리 고장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희망 학교에 찾아가 고창농악을 전수교육하면서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공동체의 식과 문화정체성을 강화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배출업소 환경 실태
평가 우수기관 연속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8일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정부 포상금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실시하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도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34곳을 배출업소 수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한 결과 25곳(전북은 부안, 무주, 장수)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실태평가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등 3개 분야와 8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받았으며, 군은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냈다.

/부안=김석진기자

“원더풀... 어메이징... 고창”

세계 태권도 방문단, 고인돌 · 운곡습지 · 동호해수욕장 · 선운사 템플스테이 체험

세계 각국의 태권도 사범들이 고창군을 찾아 연신 “원더풀”과 “어메이징”을 외치며 놀라움을 표현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해외 태권도인(이하 방문단)이 1박2일간 고창을 찾아 지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관광자원을 관람했다.

방문단은 준 리 국가원 국제대변인, 바로 바라칸 전 올림픽 심판 등 미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인도, 도미니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멕시코, 캐나다 등 9개국 15명으로 구성됐



다. 방문단은 태권도인면서 대기업 임직원, 의사, 사업가, 변호사, 국제봉사재단 회장 등 자국에서 이름을 떨치는 인물들로 고창에서 1박2일간 머물렀다.

고창방문 첫날이 7일에는 삼덕섭 고창군수의 공식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고창읍성과 고인돌, 운곡습지를 찾았다. 방문단은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의 오랜 역사와 우수한 문화, 청정 자연환경에 대해 깊은 감명을 표현했다.

또 저녁에는 천년고찰 선운사에 머무르며 예불, 참선, 발우공양(식사) 등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 산사의 조용함과 편안함이 주는 분위기가 좋았다”고 연신 엄지를 치켜세웠다.

삼덕섭 고창군수는 “‘지방없는 박물관’, ‘대한민국 최고의 미식도시’ 고창에 세계 태권도 사범단이 와주셔서 감사드리다”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창과 전라북도의 문화가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애향심 강한 활동 높게 평가 받아

정읍애향운동본부 이한욱 고문, 전북애향대상 본상 수상

사)정읍시애향운동본부 이한욱 고문이 지난 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43회 전북애향대상 시상식에서 전북애향대상 본상을 수상했다.

이한욱 고문은 정읍시문화재단 이사장과 정읍시애향운동본부 이사장으로 21년간 역임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창달과 인재육성 등 애향심 강한 활동을 벌여 본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 고문은 전북도청과 정읍시청에서 공무원으로 35년간 근무했다. 성실한 자세와 투철한 사명감이 몸에 배어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후에도 정읍시문화재단의 전국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장학



숙 건립에 필요한 10억원을 모금해 향토 인재들이 수도권 기숙시설에서 편하게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인재육성의 산실을 만들기도 했다.

이한욱 고문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밝은 내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봉사를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주어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내 고장 정읍과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수소트럭 개조 · 실증 공모사업 선정

전북 최초 수소트럭(청소차) 도입 탄소중립 선도

부안군은 한국자동차연구원 공모사업인 대형 수소특장차 실증 사업에 선정되어 전북에선 최초로 수소트럭 청소차 1대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오는 12월부터 청소차량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형 수소특장차 실증 사업은 국내 공공용 수소화물차 보급과 수소경제 활성화, 친환경차량의 국민수용성을 제고하고자 1대당 10억원 정도의 수소특장차 4대를 12개월 동안 각 지자체

에서 실증하는 사업으로 부안군, 서울시, 창원시, 충주시가 서면평가와 발표를 통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었다.

수소트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해 물질 배출이 전혀 없고 미세 먼지도 줄이는 친환경 화물차로 내연기관 청소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의 오염물질로부터 청소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부안군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시대적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

하고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노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3년에 수소 저상버스 2대와 수소청소차 2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현재 수소승용차 18대를 보급 하였으며 수소중형소 1개소 2기를 운영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탄소중립과 함께 부안군 민선8기 역점사업인 부안형 수소산업 플랫폼을 군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6.25전쟁 유공자 화랑무공훈장 전수

6.25전쟁 당시 공로가 인정돼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생전에 받지 못한 무공훈장이 70여년만에 유족에게 주어졌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6.25전쟁 유공자인 고(故) 강민술 상사의 자녀 강주원(60)씨에게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전수식은 8일 부안군청에서 열렸다.

고인은 6.25전쟁 당시 제헌련소 소속으로 장병 훈련 양성, 북한군 침투 시 공비 토벌 및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아 1952년 11월 10

일 무공훈장 서훈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하고 전역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드리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잊지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장 전수는 국방부와 육군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19년부터 추진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에 따른 것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농식품부 식량산업 종합계획 이행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지역단위 식량산업 종합계획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이 같은 성과는 안정적 식량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한 식량 산업 5개년 발전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지역단위 식량산업 종합계획 이행평가는 식량 산업 분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이행 실적(성과)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A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미국 분야, 발효물 분야, 지사



체 이행 노력 등 3개 항목 14개 지표에 대해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정읍시를 비롯해 세종시와 서천시 3개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식량 산업 활성화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 식량 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 식량 분야의 자체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식량 산업의 생산·유통·가공 관련 시설투자 수요를 분석해 해마다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시는 미국 분야 90.8%, 발효물 분야 88.3%로 두 분야에서 모두 높은 성과를 달성했으며, 식량 산업 전반에 대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이화수 시장은 “앞으로도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토대로 식량 산업 협의체와 협력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추진해 식량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도시재생사업 운영 ‘연지길 주민토론회’

정읍시 연지길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위원장 고정숙)는 지난 8일 청춘출력소 3층에서 연지길 주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연지길 주민토론회는 ‘연지길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일환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와 계획 수립 전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주민들이 원하는 연지길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참여자 인사와 진행자 소개로 시작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연지길 도시재생 아카데미의 지난 화차 진행내용에 대한 설명과 도시재생 예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도시재생 공모 등 절차와 일정에 대한 설명이 진행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

다.

참석자들은 4개 팀으로 나눠 각 팀에 배정된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연지길 마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연지길 재생에 필요한 여러 사업에 대한 특별 발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참석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연지길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민의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